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 뉴스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산업·경제 -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진흥 센터 개설

환경·안전 - 파리의 건강한 먹거리 정책
도시교통 - 거리 예술로 보행자 안전 확보하고 상권 되찾아
도시계획·주택 - 지역 특성에 맞춘 대중교통 시스템 구상과 사회실험 개시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북아메리카〉	
<u>미국</u>	
매디슨·시카고	조민서
샌프란시스코	송태수
시카고	강기향
포틀랜드	김규리
	김현철
하와이	임지연
휴스턴	이경선
<u>캐나다</u>	
에드먼턴	장지훈
토론토	고한나
〈아프리카〉	
<u>케냐</u>	
나이로비	한 울
〈오세아니아〉	
<u>오스트레일리아</u>	
시드니	황현정

〈아시아〉	
<u>말레이시아</u>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u>싱가포르</u>	
싱가포르	이지은
<u>인도</u>	
뉴델리	박원빈
	박효택
<u>인도네시아</u>	
자카르타	박재현
<u>일본</u>	
도야마	서유환
도쿄	김영준
<u>중국</u>	
광저우	손지현
베이징	정민욱
충칭	모종혁

〈유럽〉	
<u>네덜란드</u>	
암스테르담	장한빛
<u>독일</u>	
베를린	홍남명
슈투트가르트	정윤주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u>스페인</u>	
바르셀로나	진광선
<u>이탈리아</u>	
로마	서동화
피렌체	김예름
<u>프랑스</u>	
파리	김나래
	정연주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탄생 150주년 기념행사

이탈리아 피렌체시 / 문화·관광

피렌체시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시장 산탐브로조의 탄생 15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과 함께 세미나,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진행. 도시에서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짐

배경과 목적

- 피렌체에서 전통시장 산탐브로조(Mercato di Sant' Ambrogio)가 지니는 의미
 - 산탐브로조 시장은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1843년 5월 29일 처음 문을 연 이래 150년 동안 피렌체 시민의 식문화를 책임져 온 역사적인 공간
 - 피렌체의 산탐브로조 성당 근처이자 과거 수도원이었던 자리에 위치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오픈. 시장 내부에는 육류, 해산물, 치즈, 빵, 파스타를 판매하는 23개의 상점과 피렌체 전통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식당들이 있음. 외부에는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60개의 판매 공간이 있음
 - 피렌체 지역의 농부와 시민을 연결하여 시민에게 가장 신선한 고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
 - 피렌체 전통문화를 지키고 미식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
 - 시민이 유대감을 경험하는 만남의 장소 역할을 하는 피렌체 역사의 산물. 피렌체 토박이라 불리는 피오렌티니(Fiorentini)가 가장 애정하는 장소로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 사람 사이의 연결과 소통에 큰 가치를 두는 피렌체의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장소
 - 150년 동안 전쟁, 대홍수, 팬데믹 등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 똑같은 모습을 지키는 모습에 시민들은 큰 자부심을 가짐
 - 주위에 성당, 피렌체 대학교, 극장 등 학생과 노동자의 식생활뿐 아니라 일상을 함께하는 시민의 휴식처
 - 피렌체의 일상 문화 체험을 위해 외국 관광객이 꼭 방문하는 곳으로 관광지로서도 중요



[그림 1] 산탐브로조 시장의 외부, 내부 모습 (출처: <https://www.destinationflorence.com/>)

주요 내용

- 150주년 기념행사 내용
 - 산탐브로조 시장의 상인들과 조합, 피렌체 시장, 정치인, 문화 예술가, 시민 등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
 - 피렌체 대학교 건축학과 학생들과 프로젝트 협업을 진행
 - 건축학과와 필수 과목인 건축 측량 과목을 협업하여 프로젝트 결과물을 시민에게 오픈
 - 건축학도들의 눈으로 바라본 전통시장의 사진 및 스케치 전시회
 - 150주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상영회
 - 산탐브로조 시장과 연관된 피렌체의 역사적인 인물을 소개하는 세미나
 - ‘이탈리아 요리의 아버지’로 불리는 펠레그리노 아르투시(Pellegrino Artusi)는 1800년대 매일 산탐브로조 전통시장에서 식재료를 사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몰두. 그의 증손자가 세미나에 참여하여 산탐브로조 시장과 관련한 펠레그리노의 일상을 나누고 그의 요리를 직접 선보이며 시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짐
 - 시장 상인들이 직접 준비한 피렌체의 전통 음식을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즐김
 - 오랜 시간 산탐브로조 시장이 도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준 자원봉사 단체, 복지 단체, 경찰 등 공공서비스 단체에 ‘전통시장의 친구(amici del mercato)’가 새겨진 감사패 전달

정책 평가 및 의의

- 도시 내 전통시장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
 - 피렌체는 지난 10년 동안 약 300만 유로(약 43억 원)를 산탐브로조 시장 재정비에 투자
 - 소비자들의 의미 있는 미식 경험을 위해 내부 디자인 및 바닥재 보수. 도시 규율에 맞춰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지붕 보수.
 - 2023년 시작된 주위 거리와 경관을 깔끔하게 하는 공사는 2024년 완료 예정
 - 인터넷 쇼핑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도 산탐브로조 시장의 주요 소비층인 것이 고무적
 - 단순한 시장이 아닌 경제·사회·문화를 총체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으로서 피렌체의 전통문화 유산이라는 역할에 초점
 - ‘인간적인 장소’로 남는 것에 큰 가치를 둠



[그림 2] 산탐브로조 전통시장 탄생 150주년 행사의 모습 (출처: <https://daicolliorentini.it/>)

<https://www.toscana-notizie.it/-/i-150-anni-del-mercato-di-sant-ambrogio-il-presidente-giani-all-evento-conclusivo>

<https://www.lanazione.it/firenze/cronaca/i-150-anni-del-mercato-di-santambrogio-mostra-sulla-documentazione-digitale-d1ea385c?live>

<https://www.nove.firenze.it/mercato-santambrogio-festa-per-i-150-anni-durera-fino-al-14-gennaio.htm>

<https://daicolliflorentini.it/150-anni-di-storia-per-il-mercato-di-santambrogio-presidio-di-fiorentinita/>

<https://www.firenzetoday.it/eventi/mercato-san-ambrogio-festa-150-anni>

김 예 림 통신원, yereumkim@gmail.com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진흥센터 개설

스페인 바르셀로나 / 산업·경제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카탈루냐주와 바르셀로나의 협동조합 연맹들과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유럽 최대 규모의 협동조합 인큐베이터센터(Bloc4BCN)를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의 상징적 공간인 칸 바뜨요 공장 부지에 개설

배경

- 주민 자치 공간인 칸 바뜨요와 카탈루냐의 협동조합 문화
 - 19세기 중반 스페인 최초의 협동조합인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의 마타로 협동조합 탄생
 - 1936년 내전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회 혁명을 통해 카탈루냐와 발렌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스페인 전역에서 협동조합 문화가 활성화
 - 프랑코 독재 기간에 협동조합 문화에 대한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독재 기간이 끝나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며, 또한 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실업자가 등장하면서 스페인의 협동조합주의가 다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
 - 카탈루냐의 주도인 바르셀로나는 협동조합 문화의 뿌리가 있는 곳이자 여전히 많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시민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도시
 - 폐쇄된 섬유 공장이었던 칸 바뜨요 부지는 시 소유로 개발 계획은 수립되었지만 수십 년간 계획이 실행되지 않고 방치되어 주변 지역의 쇠퇴를 불러왔음. 이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이 공장 일부를 점거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주민들의 자치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시에서 주민들에게 공장을 양도함. 현재도 칸 바뜨요 부지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체가 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 자치의 상징적 공간이 됨
- 공공과 민간 협력의 상징, 쿠폴리스
 - 바르셀로나시는 칸 바뜨요에서 이루어지는 주민 자치 문화와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칸 바뜨요 부지에 바르셀로나 시청 산하 협동조합 촉진 기관인 '쿠폴리스'(Coopolis, Ateneu Cooperatiu de Barcelona)를 설치함. 이를 통해 협동조합 문화를 공공 행정의 대척점에 두지 않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하고자 노력

- 바르셀로나 시의회와 카탈루냐 사회적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경제¹⁾ 활성화 전략 ESS 2030 수립
 -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은 사회연대경제의 구조를 성장·강화하고 도시와 시민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카탈루냐 사회적경제협회와 바르셀로나 시의회가 주도하는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들이 합의한 문서. 바르셀로나시의 향후 10년 동안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우선순위 정책을 명시함
 - 이 전략은 차기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에 대한 지침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8가지 전략 축과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중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로 정해진 10가지 ‘도시 프로젝트’를 제시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의 10가지 ‘도시 프로젝트’ 중 하나가 칸 바뜨요에 위치할 협동조합 인큐베이터센터 Bloc4BCN 설립 프로젝트임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 수립 동기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보건 위기에 바르셀로나의 사회연대경제는 지방정부의 제안이나 이니셔티브에만 의존하지 않고 집단적인 대응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증명
 - 헤게모니 경제 시스템이 생태계, 인간 복지, 인류 생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회연대경제가 제안한 것처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책 필요
 - 기술 변화로 업무 성격이 변하고 새로운 영역이 창출되면서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증가하였고, 인권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동맹들이 등장
 - 초국적 자본을 이용한 추출 경제는 도시 경제와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비민주적 변화 과정을 만들어 내는 반면, 지역사회의 공공 유산과 지역 문화를 방어하는 사회연대경제는 이러한 파괴적 힘에 맞설 수 있는 도구

1)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SSE)는 집단 또는 일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경제, 사회 및 환경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단체 및 기타 기관을 포함한다. 이들은 자산과 잉여금, 이익의 분배 및 사용 과정에서 자본보다는 자발적 협력과 상호 원조,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에 기초한다.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장기적인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 비공식 경제를 공식 경제로 전환하는 일을 열망하며, 모든 경제 부문에서 운영된다(출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의 사회연대경제 정의)

○ 카탈루냐와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 현황

- 지난 15년간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규모와 존재감이 증가했으나 전체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영구적인 관찰 메커니즘이 부재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2016년 최초로 사회연대경제 추진 계획(PIESS)을 수립함. 이 계획은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촉진 및 강화를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인 사회 변혁을 꾀하는 전략적 장기 계획
-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특정 장비, 장치 및 예산을 포함하여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구조적 경제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카탈루냐주는 협동조합 아테네우 네트워크(Xarxa d'Ateneus Cooperatius)와 같은 협동조합 장려 프로그램을 실행
- 사회연대경제는 유엔이 채택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17가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중 11번째 목표인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는 도시 및 지역사회'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바르셀로나 시의회의 전략과 실행 계획은 대부분 2030 의제와 일치

협동조합 인큐베이터센터 설립 목적

-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및 홍보, 협동조합의 육성 및 가속화, 상호 협력, 지역 및 국제적 연결, 다른 단체(문화, 교육, 기업)와의 제휴 강화로 바르셀로나시와 카탈루냐주 전체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기여



[그림 1] 협동조합 인큐베이터센터 내부 예상도

내용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전략의 10가지 중점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협동조합 인큐베이터센터 Bloc4BCN Espai Cooperatiu
 - 협동조합 인큐베이터센터는 바르셀로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ESS 2030 전략의 일부로, 바르셀로나 시의회와 카탈루냐시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 협력 프로젝트
 - 이 센터의 주체인 Bloc4협회는 카탈루냐 협동조합연맹(Confederació de Cooperatives de Catalunya), 카탈루냐 노동협동조합연맹(Federació de Cooperatives de Treball de Catalunya), 쿠플리스(Associació Coòpolis)가 참여하는 단체
 - 사회연대경제의 협동조합과 단체들이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 실제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제공
 - 참여한 이니셔티브들은 개인화된 작업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통합하며, 협동조합주의와 지역 경제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
- 협동조합 인큐베이터센터 건물 구성
 - 이 건물은 간 바뜨요 공장 부지의 오래된 창고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공 투자를 통해 바르셀로나와 카탈루냐의 사회적경제 구축 및 강화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 4,500㎡를 확보
 - 공간 구성은 용도에 따라 인큐베이션, 가속화, 상호협력, 워크숍의 4가지 모듈로 구성 - 초기 성장을 위해 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3년 미만의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인큐베이션), 사업의 특정 지점을 심화시켜야 하는 최대 6년간 지속된 협동조합을 위한 공간(가속화), 협력적·혁신적 방식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개발하고 진단하며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전략센터를 구축하려는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주체를 위한 공간(상호협력), 활동 유형 때문에 시설을 갖춘 공간이 필요한 준산업 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단체를 위한 공간(워크숍) 등 구성
- 제공 서비스
 - 센터에 입주한 협동조합과 단체에 업무, 관계 및 창조에 필요한 환경 제공, 전문가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과 훈련 제공
 - 모든 사회연대경제 주체(개인 또는 집단)가 활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및 협동조합 회원의 기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새로운 협동조합 수립 및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기존 협동조합의 통합,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회연대경제 주체 대상으로 전문가의 집중적이고 개인화된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입주 협동조합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과 맞춤형 조언으로 자금 조달에 쉽게 접근하도록 돕고, 윤리적이고 협력적인 금융 기관과 연결하여 자금 조달이나 투자 요구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 카탈루냐 협동조합들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카탈루냐에 사무실을 개설하려는 국제 협동조합의 정착을 지원
- ‘테크블록4’ 프로그램을 활용해 기술 및 디지털 기반을 갖춘 기업과 협동조합 대상으로 교육, 맞춤형 멘토링, 다른 혁신 이니셔티브와의 연결을 위한 인큐베이션 공간 제공, 혁신 기술 적용을 위한 디지털 및 기술 리소스에 대한 접근 허용 등 특별 지원

시사점

-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약자를 가장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후 변화, 경제 위기, 보건 위기 등에 대처하고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 모델 중 하나
- 바르셀로나와 서울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다르지만,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이 있는 도시 및 지역사회’를 촉진하는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는 어디서나 중요해 서울에도 시사 가능. 특히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바르셀로나 협동조합 인큐베이터센터 프로젝트는 향후 사회연대경제 정책 수립에 참고할 만한 정책 사례

<https://essbcn2030.decidim.barcelona/processes/essbcn2030>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noticia/abierto-el-plazo-para-solicitar-alojamiento-en-el-bloc4bcn-espacio-cooperativo_1344475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nomia-social-solidaria/es/actualitat/noticias/el-bloc4bcn-fortalece-los-cimientos-de-la-ess-en-barcelona-el-futuro-ya-esta-aqui-1211487>

<https://bloc4.coop/>

<https://ajuntament.barcelona.cat/economia-social-solidaria/es/estrategia-essbcn2030>

https://www.barcelona.cat/infobarcelona/ca/tema/ajuntament/barcelona-presenta-lacord-de-ciutat-per-a-l-estrategia-de-leconomia-social-i-solidaria-2030_1088072.html

<https://canbatllo.org/projectes/>

<https://www.bcn.coop/>

<https://www.idelcoop.org.ar/sites/www.idelcoop.org.ar/files/revista/articulos/pdf/89020601.pdf>

https://ajbcn-decidim-barcelona-organizations.s3.amazonaws.com/decidim-bcn-organizations/uploads/decidim/attachment/file/3712/ESTRATEGIA_ESSBCN2030.pdf

https://www.ilo.org/global/topics/cooperatives/sse/WCMS_849066/lang--en/index.htm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파리시의 건강한 먹거리 정책

프랑스 파리시 / 환경·안전

프랑스 파리의회는 제3차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아그리파리 센이라는 협력체를 발족. 파리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환경 부하를 줄인 농업 생산을 촉진하고 물류와 가공에서도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

사업 개요

- 2018년 프랑스 정부는 국민토론 과정을 거쳐 제정된 이갈림 법(Egalim loi: 농업 식품 부문의 상업 균형과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발표하였음. 이를 통해 공공식당에서의 건강한 먹거리 이용 촉진과 플라스틱 재료 사용 자제, 음식물 할인 제한 등 구체적 목표와 제재가 제시됨
- 매일 파리 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파리시 면적의 78배 이상의 땅에서 2만여 명의 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파리시 전체 배출량의 20%를 차지
- 파리의회는 3차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계획(Plan alimentation durable 2022-2027)을 2022년에 채택함
- 파리시와 주변 지방정부는 2021년 1,000여 명의 이해관계자가 8개월간 참여한 시민회의 협의 과정을 통해 12개의 워킹그룹이 도출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
- 시민회의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들과 새로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협의체인 아그리파리 센(AgriParis Seine)이 2023년 7월에 출범

주요 내용

- 파리시에서 관여하는 공공식당 사업은 적어도 1,300여 곳이며 연간 3천만 명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학교 식당 706개, 유아원 450개, 노인 식사를 제공하는 에메랄드식당 44개, 공공기관 식당 15개, 어린이를 위한 사회시설 내 식당 13개, 노인돌봄시설 내 식당 14개, 사회연대 식당 12개
- 파리시에서 추진한 1, 2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의 결과로, 파리시 공공식당에서 건강한 먹거리의 비율이 8%에서 53%로 증가하였고 특히 유기농 제품의 사용은 46.2% 나타남
- 파리시에서 채택한 3차 지속 가능한 먹거리 계획(Plan alimentation durable 2022-2027)의 주요 내용
 - **과제 1) 기후와 종다양성을 고려한 학교 식당:** 식재료의 75%를 유기농으로 사용하고, 50%를 파리에서 250km 이내 지역 생산물을 사용하도록 함. 주 2회를 채식식단으로 구성하고 음식물 쓰레기 50% 줄이기
 - **과제 2)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식사:** 설탕과 소금의 사용을 줄이고 질산염화합물이 들어간 식품 금지, 팜오일과 GMO 식품 금지. 가공식품 이용을 제한하고 직접 요리하기. 공공식당 내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과제 3) 식당 직원과 이용자 둘 다 주도자로서 역할:** 식재료, 조리법,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식당 직원을 교육. 식당 이용자와 그 가족들의 인식 제고 활동. 파리시에서 시도한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규제개선을 요청,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의 새로운 시험의 장으로 공공식당을 개방하고 발전시킴
- 시민 참여 협의 과정의 결과로 2023년 아그리파리 센(AgriParis Seine)이라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파리 시민의 공공식당을 개선하고자 함
 - 7개의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 참여: 르아브르 지역사회, 후앙 메트로폴, 생상드니주, 그랑파리 메트로폴, 파리시, 파리 수도공사, 노드리온 지역 협의체
 - 주요 목적: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도농 지역 간의 연계성 강화, 공급과 수요 및 지역 간의 물류 흐름을 분석하고 지도화, 농업의 환경 영향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가치 부여,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공동 파이낸싱



Carte AgriParis Seine.
AgriParis Seine

[그림 1] 센강을 중심으로 7개 아그리파리 센 협의체 참여 지역 및 기관

(출처: 파리지 홈페이지 <https://www.paris.fr/pages/agriparis-seine-une-union-pour-nourrir-paris-de-facon-durable-23956>)

시사점

- 시민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
-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토론하고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현 정책 도출
- 파리지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센강을 중심으로 하는 한편 지리적으로 연관된 주변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도시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해 낸 점도 눈여겨볼 만함
- 직접적 결과만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정책이 궁극적으로 갖는 의미와 가능성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

<https://agriculture.gouv.fr/alimentation-durable-les-nouveautes-2024-pour-la-restauration-collective>

https://cdn.paris.fr/paris/2023/02/16/petit-resume-en-4-pages-du-plan-alimentation-durable-200-2027_bd-EJEn.pdf

<https://www.agencebio.org/2021/11/20/quest-ce-que-la-loi-egalim/>

<https://www.paris.fr/pages/agriparis-seine-une-union-pour-nourrir-paris-de-facon-durable-23956>

<https://www.paris.fr/pages/avec-le-defi-foyers-a-alimentation-positive-manger-mieux-devient-ludique-25816>

<https://www.paris.fr/pages/lancement-de-la-concertation-des-citoyens-en-vue-de-la-creation-d-agriparis-16897>

정연주 통신원, yonjoo1004@naver.com

거리 예술로 보행자 안전 확보하고 상권 되찾아

미국 워싱턴 D.C. / 도시교통

워싱턴 D.C. 차이나타운 내 복합용도지구인 갤러리 플레이스 거리(Gallery Place-Chinatown Corridor) 활성화 방안으로 보행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Chinatown Park: Pedestrian Experience Improvement Project)를 시행. 자선 및 비영리 단체가 조달한 자금으로 차이나타운 공원과 주변 거리의 예술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확보하고 보행자 노출 효과를 줄여 보행자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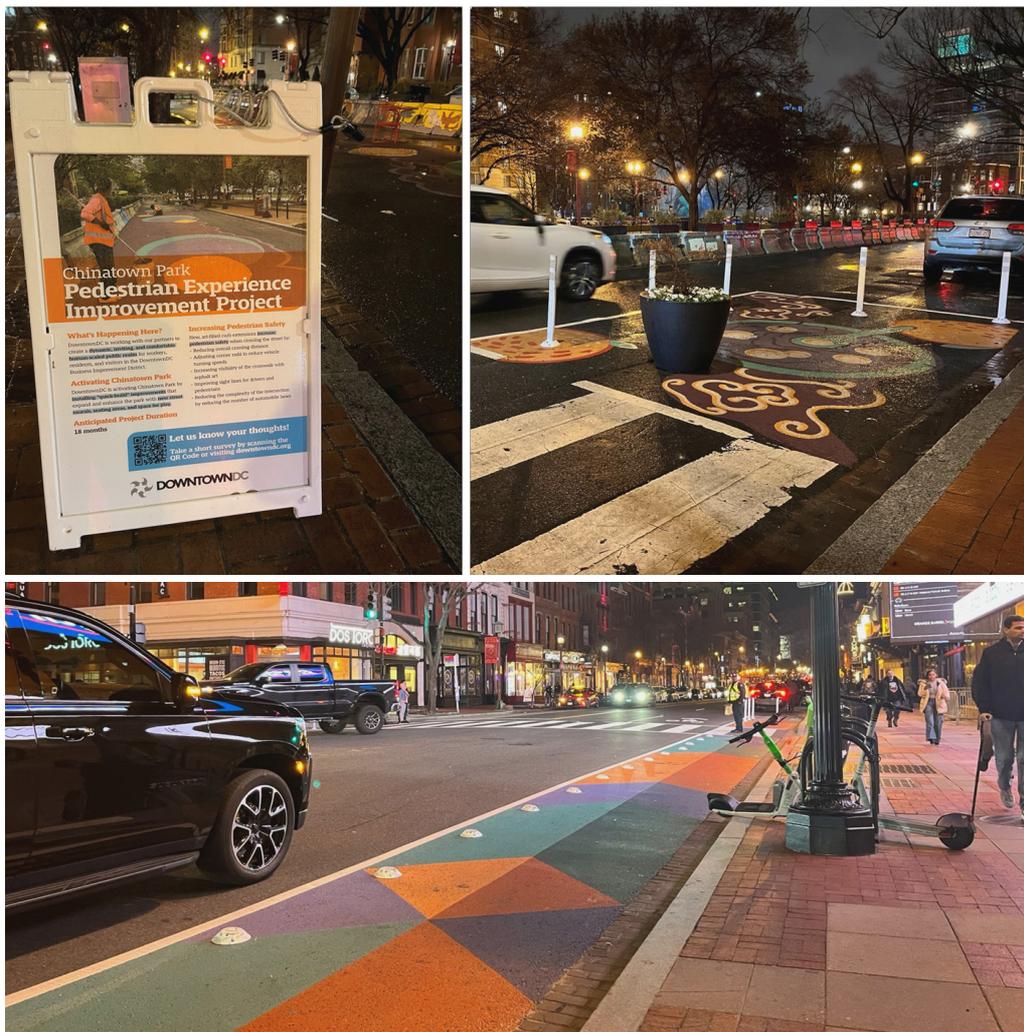
프로젝트 배경

- 오랜 침체기 겪는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연구
 -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시기에 워싱턴 D.C.의 차이나타운 내 복합용도지구인 갤러리 플레이스 거리 연구(Gallery Place-Chinatown Corridor Study)가 수행되었고, 주요한 문제점과 이에 대응할 여러 방안 마련
 - 2021년 가을부터 비영리 장소 관리 단체인 다운타운 D.C. 비즈니스 개선 지구(Downtown DC 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BID)에서 연구 수행
 - 1995년에서 2005년까지는 활기가 넘쳤던 워싱턴 D.C. 차이나타운 내 갤러리 플레이스 거리는 이후 오랜 침체기를 겪는 중. 팬데믹 타격으로 심각한 상권 침체 및 치안 문제라는 위기에 직면. 이에 다운타운 D.C. BID는 상권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절감.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여 1년간 연구 진행
 - 소상공인 상권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공 공간의 안전이 필수라는 관점에서 F와 G 거리 사이의 7번가 ‘보행자 경험 개선 프로젝트(Chinatown Park: Pedestrian Experience Improvement Project)’를 제안하고,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후 실시

프로젝트 주요 내용

- 프로젝트 대상지
 - 워싱턴 D.C. 차이나타운 내 F와 G 거리(F St NW, G St NW) 사이 7번가
 - 대상지 주변으로 쇼핑센터와 상점들이 있으며, 대상지 끝에는 스포츠 아레나(Capital One Arena)와 국립초상화박물관이 위치

- 많은 교통량과 보행량에 비해 도로 이용자의 가시성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보행자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



[그림1] 프로젝트 대상지 워싱턴 D.C. 차이나타운 일대 (출처: 필자 촬영)

- 자선 및 비영리 단체로부터의 자금 조달
 - 블룸버그 자선사업(Bloomberg Philanthropies)의 아스팔트 아트 이니셔티브 (Asphalt Art Initiative) 보조금과 비영리 단체인 BID의 다운타운 D.C.재단을 통해 받은 자금으로 사업 진행

- 여섯 번의 공개회의
 - 다운타운 D.C. BID는 여섯 번의 공개회의를 주최해 프로젝트 범위 내 설치될 거리 예술에 대한 주민 및 지역 상인들의 선호를 공유하고, 의견 제안하는 자리를 만들
-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 공간 조성
 - 보행자 안전과 지역 문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차이나타운 파크 설치 및 거리 예술
 - 초크 라이엇(Chalk Riot)과 픽킨 크리에이티브(Pipkin Creative)의 거리 예술 (asphalt art 혹은 street murals)은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동시에 주민에게 쉽게 제공
 - 보행자 안전 문제 개선
 - 거리 예술로 확장된 교차로의 연석은 보행자가 건너야 하는 거리를 감소시켜 차량과 충돌할 위험 가능성 감소
 -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가시성 개선
- 1년 6개월 동안 시범 운영

시사점

- 상권 문제점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자체의 연구 선행
 - 연구 결과 바탕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공간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문제와 거리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방안 찾음
- 지원받은 자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공 시설물의 다양한 효과
 - 자선 단체와 비영리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지역 내 여러 커뮤니티의 의견 수렴
 -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공공 시설물 디자인 및 설치 방안 채택

<https://www.downtowndc.org/who-we-are/>

<https://www.downtowndc.org/report/gallery-place-chinatown-corridor-study/>

<https://www.downtowndc.org/report/pedestrian-safety-experience-study/>

<https://asphaltart.bloomberg.org/>

<https://downtowndcfoundation.org/>

<https://www.chalkriotart.com/>

<https://www.pipkincreative.com/>

김 규 리 통신원, kyuri@pdx.edu

지역 특성에 맞춘 대중교통 시스템 구상과 사회실험 개시

일본 나고야시 / 도시계획·주택

일본 아이치현 중심에 위치한 나고야시는 인구 약 230만 명의 대도시로 새로운 대중교통 시스템 SRT를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실험을 개시. SRT는 도심 내 흩어져 있는 문화, 관광, 쇼핑의 거점 연결을 위해 대중교통을 개편하고 사람 중심으로 도로 공간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나고야시의 독자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임

나고야시의 'SRT(Smart Roadway Trans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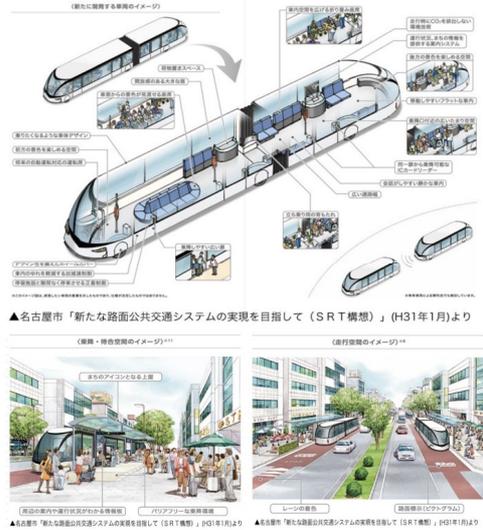
- SRT는 기존 대중교통 시스템(LRT¹⁾, BRT²⁾)과는 달리, 선진 기술에 의한 쾌적한 승차감과 세련된 디자인 등의 스마트(smart)함을 갖추고, 매력 거점지역의 노면 (roadway)을 연결해 줌과 동시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교통수단(transit)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나고야시가 독자적으로 명명한 대중교통 시스템

SRT 구상의 배경 및 목적

- 나고야시는 일본 내 도시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도시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나고야시에 적합한 새로운 교통 전략을 세우고자 함
- 나고야시는 SRT를 이용하여 도심 내 흩어져 있는 문화, 관광, 쇼핑 등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경쟁력 있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고자 함

1) LRT(Light Rail Transit): 노면전차(트램)를 기반으로 한 교통 시스템

2)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로 기존 버스에 각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강화한 교통 시스템



[그림 1] 나고야시 SRT 시스템의 콘셉트 이미지

(참조 : <https://www.city.nagoya.jp/jutakutoshi/cmsfiles/contents/0000089/89453/SRTkoso.pdf>)

SRT 구상의 사회실험 ① 나고마치 테라스

- 나고마치 테라스는 기존 보도를 넓혀 이용자가 버스 승하차를 이전보다 더 쉽게 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에게 쾌적성을 제공



[그림 2] 나고마치 테라스의 개념도 및 설치 사례

(참고 : <https://project.nikkeibp.co.jp/atclppp/PPP/news/102603116/>)

SRT 구상의 사회실험 ② 스트리트 퍼니처 및 디지털 안내판 확대

- 다양한 스트리트 퍼니처를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 시설을 확충
- 디지털 안내판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하여 관광, 노선 등을 안내할 뿐 아니라 나고야시의 SRT 시스템에 대한 홍보(PR)를 적극적으로 실시



[그림 3] 스트리트 퍼니처 및 디지털 안내판 설치사례

(참고: http://www.maruhachi-kotsu.com/tanken/L14SRT_test.html)

나고야시 SRT 시스템의 의의

- 대도시에서는 교통 인프라나 대중교통 등에 관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됨
- 일본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 도입되거나 도입을 검토한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닌, 나고야시의 여건과 지역 특성에 맞춘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점에서 대중교통 및 교통 인프라의 발전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한 도입에 앞서 단계적인 사회실험을 하여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SRT 시스템을 보완하며 조기 도입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음

<https://project.nikkeibp.co.jp/atclppp/PPP/news/102603116/>

<https://www.city.nagoya.jp/jutakutoshi/cmsfiles/contents/0000089/89453/SRTkoso.pdf>

http://www.maruhachi-kotsu.com/tanken/L13SRT_system.html

https://www.homes.co.jp/cont/press/buy/buy_01534/

<https://www.city.nagoya.jp/jutakutoshi/page/0000089453.html>

http://www.maruhachi-kotsu.com/tanken/L14SRT_test.html

<https://kusanonetink.hatenablog.jp/entry/2020/10/27/215757>

서유환 통신원, yuhwan_seo@naver.com

세계도시동향 제572호

발행인 오균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4년 4월 15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 개발과 도시 관련 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 도시의 정책 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들이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 송도숙(song@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ISSN 2586-5102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이 보고서의 내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